

2010년대의 美 陸軍

● 金 煉 (譯) / 防振會
振興部



미래의 육군은 敵을 제압하기 위한
방위비 지출증가보다는 상대의 약점
을 찢러 우위에 설수 있도록 전략적인
통찰력과 技術 그리고 창조력에 역점
을 두어야 한다

Bernard Grun의 <The Timetable of History>에 의하면 사회의 역사적인 단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도 최근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가속화될 것이다.

世上事와 기술발전은 더욱 예측이 어렵겠지만 미국은 이익보장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어 세계에서 미국의 탁월한 지도력은 지속적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육군의 주된 과제는 줄어드는 희소자원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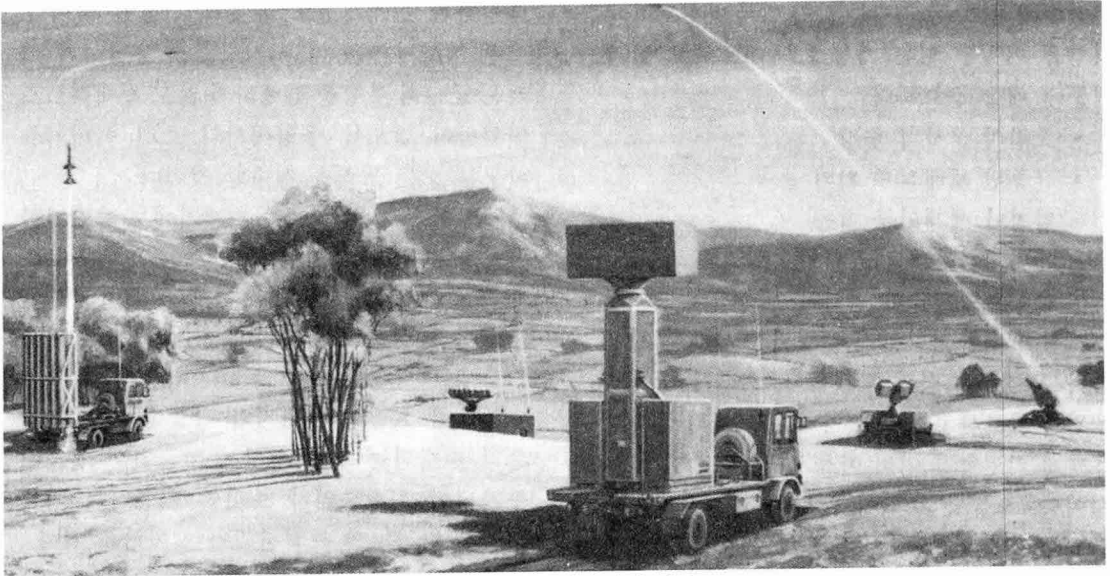
21세기까지는 불과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의 중·소위와 대위는 새로운 세기에는 대대장·연대장의 지위에 있을 것이다. 물론 그때 사용하게 될 장비는 대부분 전개중이거나 생산 또는 계획단계에 있다.

장비를 생산하고 정비, 운용하는 막대한 투자는 신병을 뽑아 훈련·배치하여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무기개발과 엄청난 비용에 관한 장기순환을 포함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더욱 부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운용상 효과적인 자원을 선택하게 된다.

다음의 20년 동안 육군의 계획은 부족한 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핵무기상태를 증식하거나 앞으로 기본 군사력을 축소 내지 철수와 같은 이러한 모순된 외부 요인으로 야기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미래를 정확한 방법으로 예측할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고찰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능성을 감안한 고찰은 장비 및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한 효과적인 미래 육군을 生成시킬수 있다.

따라서 육군은 미래의 흐름을 認知하여 적절한 추론과 가능성을 도출해야 한다. 즉 국가적 군사전략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나 조사



무기획득 효율성 : 기존 구성물을 이용한 미래의 中距離 방공체계 개편

의 결정과 총포 개량, 훈련, 교육과 軍 계획 결정에 폭 넓은 기반이 조성되게 하는데 있다.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장기계획과정을 잘 예측하고 통합해 보면 미래의 육군에 필요한 구조를 얻을수 있다. 그것은 「해군 합정 6백척」하는 것처럼 단정지을수 없지만, 그러한 미래 육군의 필요와 합당성을 잘 이해할수 있다면 의회와 국민은 다음 세기에는 그 요구를 승인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육군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그 위협을 평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적은 누구이며 어떠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적을 직면하게 되고 軍 수행능력은 어떤 사건에 효과적인가? 육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몇가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은 더욱 정확하게 예측될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미래의 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장차 존재하거나 알려져서 기대되는 추세와 영향요소에 합리적인 접근을 계획하는 것이다.

주된 흐름을 認知하여 이에 접근하고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유효화하는 것은 이 글의 영역밖이다. 따라서 이것은 학원내의 미래학자와 국방성 분석자들의 소관인 것이다.

예 전에 기대되는 미래환경을 충분히 정의하여 육군을 위한 미래 설계도가 작성되었다. 즉 전체적인 병력, 조직구성과 그 단위의 성격, 그리고 사용할 장비, 전술과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선정된 대체안은 實地 시험운동과 컴퓨터 분석 평가를 통해 시험된다. 이것은 육군의 최고위 부서에서 결정될 것이다.

각 가능성이 취할 방향 또는 미래 육군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너무도 많아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다음 세기에 기대되는 몇가지 주요 가능성을 조사함으로써 비록 모든 군사요소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미래 형태에서 어떠한 군사력이 중요한가를 판단할수 있다.

다음 기술하는 2010년의 미국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추세는 다음과 같다.

중요사항順으로 대강 기대되는 영향을 기술

하였는데, 이 모든 추세는 각기 미국 방위보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소련의 군사력 증강
- 급증된 재래식 무기의 존속
- 엄청난 세계인구 이동
- 에너지자원의 계속적인 감소
- 우주과학기술의 경이적인 발전

21세기의 처음 10년간 추정되는 세계 정치·문화 환경은 소련과 관계된다. 소련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들의 군사적 용맹에 기인함을 여러 이유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소련이 대량의 기계화장비를 동원한 잔인한 방법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련은 21세기에도 핵우위가 지속되지만, 이를 이용하여 군사력을 통제하거나 감축시키는 협상의사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협상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성숙된 국가를 위해 地政學的으로, 군사적·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얻게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정치·경제적으로 유리한 할당을 위해 西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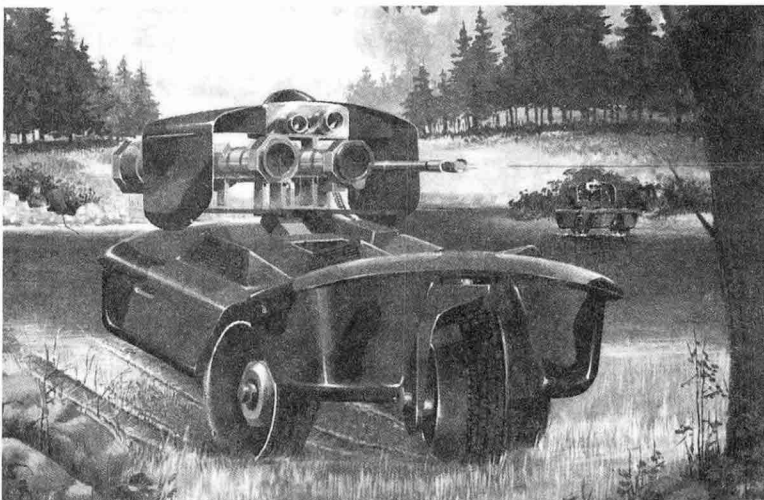
유럽과의 관계개선도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소련 지도자들은 이 시기만큼은 용납하기 어려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유럽에서의 소련 이미지를 바꾸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는 21세기에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엄청난 속도의 인구증가, 뼈를 깎는 듯한 가난, 많은 외채, 방위비 증대와 식량과 食水の 부족등의 압박으로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이러한 요인과 에너지와 광물질 자원의 감소가 증대되는 속에 선진 공업국과의 경쟁이 부가되어 기회주의자 소련이 이용하는 국내 내지는 국가간의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소련은 정치·경제·군사적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3세계까지 계속적인 침투를 할 것이다. 소련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은 제3세계 입문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장비와 훈련의 반대급부로 소련은 종종 정보와 통신·항구시설의 출입권을 얻는다.

어떤 경우에는 베트남의 Cam Ranh灣에서와 같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권리를 얻는다. 쿠바등 다른 국가에서도 소련의 그러한



육군은 人力대체를 위한 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림은 기동성과 로보트 기능을 지닌 對 장갑차량 발사대 운용 시험 모습

권리를 획득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3세계가 내포한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인 군국주의 확산은 21세기에 또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늘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최신의 화포와 완전히 근대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는 주요 무기를 생산하여 수출한다.

화학무기와 核 제조능력이 증가하여 더욱 심각한 추세이다. 즉 2000년에는 「핵 club」이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더욱 많은 국가가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현재도 많은 국가들은 기술적으로는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보류중이다).

核의 확산은 로켓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지역 방위력으로 한정될 것이다. 군사력의 지속적인 증가는 후진국을 무서운 敵으로 변모시킬 가능성도 있어, 불안정한 제3세계의 군사력 증가는 지역적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짚게 하지만, 南美國가에서의 격렬한 폭동이나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의 분쟁을 가벼운 긴장상태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1세기에 미국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분쟁은 다음과 같다.

- 페르시아만에서 소련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 사이의 새로운 분쟁
- 중앙 아프리카에서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는 게릴라 활동
- 제3세계의 공업화 및 민주화, 西方의 군사시설에 대한 소련 또는 대리 테러행위
- 멕시코에서의 시민 폭동
- 미국의 동맹-특히 NATO 해체를 위한 정치·경제·심리적 전쟁
-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와 같이 핵무장된 제3세계 국가사이의 분쟁

분쟁이 일어나는 공통적 요인은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인도·멕시코에서의 인구폭발 문제인데, 2010년쯤에는 후진국인 그들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76%에서 81%로 상대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급속한 증가율로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2010년에 2배의 인구조로, 2035년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인구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러한 예시는 오직 상대적 증가를 설명하는 것뿐이며 전쟁과 饑餓, 移民 또는 AIDS같은 악성 유행병의 변수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印度의 인구조도 계속 증가하여 2000년경에는 중국의 인구조보다 약간 적게 되며, 멕시코의 경우도 엄청난 증가율을 나타내지만 연령의 구조가 관심을 끈다.

1987년 워싱턴의 세계人口照會局이 발간한 〈세계인구조자료집〉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미국은 전체인구의 22%인데 비해 멕시코는 42%를 차지하며, 20세기말 멕시코의 인구는 현재의 3배로 불어나 40세 연령의 인구가 1억1천1백만이 되고, 전체인구의 77%는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운채 살게된다고 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미 대량의 실업과 정치적 불안으로 폭발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세계의 경제는 페르시아만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서독과 함께 석유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서양의 석유생산지역에서 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석유공급 통제를 위해 불안정한 정권과 局地戰, 通商금지, 테러행위, 소련 또는 소련 대리행위는 중요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태양에너지源, biomass와 같은 색다른 연료들은 21세기전까지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국가들간의 경쟁으로 우주는 더욱 중요하게 된다.

우주수송체계가 널리 보급되고, 우주진출이

보편화되었으며 우주의 상업적 이용이 경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美·蘇외에 많은 국가도 당연히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21세기초에 육군은 전체적인 미국의 방위구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단기간에서 테러와 같은 가벼운 분쟁과 소련 원조의 혁명(전통적인 대리전쟁), 핵전쟁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작전 필수조건을 가상적으로나마 구상해야 한다.

21세기에 테러는 미국(확대하면 육군)의 문제로 계속 남는다. 비재래적 전쟁도구와 함께 테러행위는 선진국과 군사강대국에 대항하는 수단이다. 육군의 목표는 테러행위로 인한 美 군사력에 미칠 충격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人事管理는 다음 20년동안 많은 주목을 끌게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비밀리에 고용하는 부서와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 기초적 인력자금의 축소로 육군을 현수준에서 모든 지원자를 뽑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1990년대의 人件費의 부족은 예비비와 21세기의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도수준의 보병인력에 필요한 기초인력자금의 부족과 여성의 전투행위 금지로 인력대처를 위한 기술을 강조하는 현 육군 프로그램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대책이 만병통치약이 될수는 없는 고질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

軍 개개인과 단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1990년대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비약적 개발을 위한 전략적 동원자금은 1990년대에 계속 부족하여 육군의 수행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보다 簡素한 고도의 기술 병력구조에 관한 육군의 실험을 새로운 전쟁전투이론에 적용하고, 軍 동원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주어진 땅과 바다, 동원자금이 제한

받는한 군의 동원문제 해결책은 보다 간소화된 軍構造뿐만 아니라 輕장비 무기체계와 개량된 화력으로 국한된다.

비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불평에 관한 소견으로 이러한 무기사용에 관련된 육군의 원칙과 병력계획은 전쟁을 저지하고 戰場사용을 위해 작전계획의 내부적 견실을 도모하도록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핵전쟁에서의 작전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이 되어야 한다.

장차 육군은 長短期 임무수행에서 최적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별 기술적 배치가 요구된다.

적당한 성숙을 위해 육군은 미래의 수행능력과 결정시점에 있어 보다 중요하고 선별적인 시각을 갖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육군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동안의 무기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개선된 기술진보를 이용하여 그 위치에 올라야 한다.

예를 들어 21세기에는 단기 군조달계획이 취소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성공이 없는한 M-1 Abrams 전차와 AH-64A Apache 헬기등 이와 유사한 장비는 연료조달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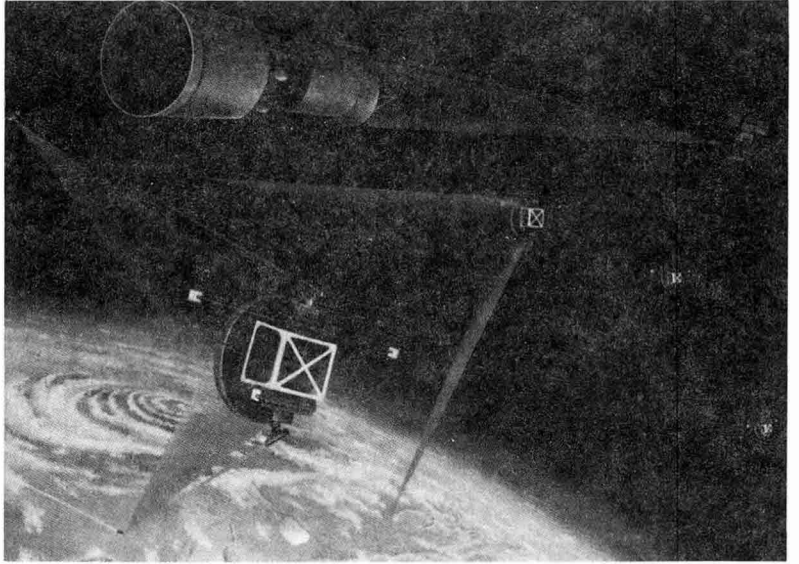
육군은 전술차량부문에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연료 효율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보다 저렴한 합성연료 개발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전략방위계획(SDI)의 폭넓은 연구결과로 초전도체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미래 무기체제의 계획과 사용에 관한 기본적 암시를 받을수 있다.

우주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육군은 국방성의 역할을 美 우주정책 측면에서 정의하고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앞으로 美 육군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기초과학이 제공한 많은

소련은 우주와 전략무기체계의 우위를 추구할 것이다. 레이저 체제에 기초한 미래 소련 우주 구성체(假想圖)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도는 兩面性을 지니게 된다. 무기설계와 인원배치, 교육 그리고 정비유지 체계의 再編을 위해 진보된 기술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육군이 21세기초의 10년간 직면할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극복될수 없는 사항은 아니다. 단기간에 취해진 육군의 결정은 10년 동안의 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가능성은 美 육군의 핵 및 화학무기와 재래적이고 특수한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추가자금을 필요로 하는 반면, 수년간 국방예산을 감축하려는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육군은 적을 제압하기 위한 방위비 지출의 증가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전략적인 통찰력과 기술·창조력의 우위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장기계획입안자의 과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전략적 환경을 관찰하여 미국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조사하여 육군지휘체제에 필요한 선택을 제공

하는 일이다.

2010년의 세계는 1910년의 세계와 많은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상호연결 공동체인 「empires (제국)」이 여러개 존재하며, 과학기술은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흡수되기 전에 더욱 놀랄만큼 진보한다. 세계인구의 상당수가 필수품도 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어 군국주의는 한번쯤 다시 일어서게 된다. 바로 새로운 분쟁을 향한 시대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육군과 특히 육군의 지도층은 분쟁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믿어야 한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기 쉽다.

잠재적인 문제와 분쟁을 예측해서 얻어지는 시간은 곧 우리의 생존에 중대한 요소가 되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참 고 문 헌

- ▲ 「What will the Army look like in 2010?」, 〈ARMY〉, 1988년 7월호, pp. 18~24.